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3년

Email: VoiceOfNM@gmail.com



사진: Rio Grande강가의 가을 단풍

### 한인회

## 가을인사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께  
가을인사 드립니다.  
길가에 잔디위에 흩어져 있는  
나뭇잎들이 제작년에 즐겼던  
고국의 가을단풍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바람결 조심하세요.



조규자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2013년도 김치축제를 잘 치러 낼수 있기까지 부회장 임넌시를  
비롯해서 아낌없이 성원과 정성을 따스하게 다정하게 애써주신  
여러분께 큰 절 올리며 감사함을 외쳐 봅니다.

사회자 이옥주씨의 낭낭하면서도 구수한 목소리의 개회사에 이어  
미국 한국 애국가로 진행이 되면서 한인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김치축제를 시작한 문상귀 회장님과 4년간 열심히 행사를 이어온

### 2013년 11/12월호 내용

- 표지 | 한인회장 가을인사 : 1
- 한인회소식 | 사진으로 본 김치축제 : 3
- 교회 소식 | 사랑하는 알버커키한인교민들에게 | 박은애 : 4
- 교회행사 | Cuba에서 주일학교 캠프 | 노혁천 : 5
- 성경 읽기 | 널려있는데 읽히지 않는 책 성경 | 김기천 : 7
- 교회성장 제안 | 성장과 성숙 | 최성원 : 8
- 지역사회 정보 | 알버커키 부동산은 어떤가? | 최귀분 : 10
- 수필 | 알버커키에서의 1년 | 노혁천 : 11
- 예배 | 기도문 | 조영애 : 12
- 생활상식 | 기부금공제세법에 관하여 | 김&김회계법인 : 12
- 지역사회 | 나의 뉴멕시코 | 이상목 : 13
- 유머 | 할머니의 기도 : 13
- 교육 | 대학에 가는 목적 | 다니엘 홍 : 14
- 뉴멕시코 소개 | 나바호 인디언은 누구인가? | 이경화 : 15
- 취미 | 뉴멕시코주의 상식을 점검해 보는 Crossword Puzzle : 15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8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안내 : 19

## 한인회소식

<가을 인사 1페이지에서 계속>

김두남회장님들께 감사했으며 현 회장으로써 잘 해 볼려고 노력했음을 언급했습니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장기자랑들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며, 한글로 잘 표현하는 학생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으며 더욱주씨의 밝은 모습과 유머스런 진행에 멋적어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수 있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감사해요 그리고 수고해 주신 한글학교 신미경 교장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학생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사때마다 나긋나긋 매력있게 아름다운 춤으로 청중을 매혹시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희정씨께 감사드립니다.

Dynamic Taekwondo 사도들과 사범님들의 다이내믹한 음악과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의 집중력의 demonstration 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면을 조화롭게 흥미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재진 관장님, 사범님들, 사도들 감사 합니다.

정종인 이사장님의 원거리 물품구입과 여러번의 건물 수리는학생들 수업과 축제의 한인회관의 안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텐트 쳐 주시고 텐트 기부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신 조한옥씨와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바쁜일정에 시간과 사랑과 물품을 기부하신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한국 미국 주민 여러분께 또 감사 드립니다.

-----Donation 내역-----

감리교회 침례교회 주님의교회 천주교회 라스크루세스침례교회 최신옥 조문성 정지에 김진화 김다련 용정에 김길자 김영신 박에스터 김영인 이찬미 Mrs.조Ryan Robbie and two friends 최영애 윤순분 Arirang market, Kim's market, A-1 market, Asian market, Tarlin market, 99cents store, Huang Tao, Yumi house, All Star realty, Kelly Accounting 총수입 \$5210 총지출 \$1049 현잔액 \$4161 (한인회 Mortgage 와 Monthly Utilities bill에 사용될것입니다) 고 유재명님의 미망인 유사모님께서 \$570의 기부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한인회 행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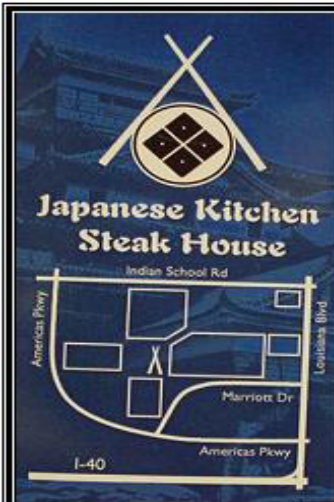
11월20일 Thanksgiving Luncheon

한인회관에서 12시에 있습니다.

12월10일 크리스마스 luncheon 겸 노래자랑 대회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국학교소식

12월 21일에 한국학교 졸업식 및 학생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21일) 한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학부모님 및 관심있는 모든 교민들을 대상으로 제2회 한글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교장:신미경>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 사진으로 본 김치 축제

2013년 10월 19일



**Prudential**  
AllStar, REALTOR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7001 Prospect Place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10  
Office: (505) 888-1700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 member of BRER Affiliates LLC. Not affiliated with Prudential. Prudential marks used under license. Equal Housing Opportunity.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 사랑하는 알버커키 한인교민들에게

박은애 사모  
Grace Park

33년전 저에게 박인배목사님을 저의 남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6월 28일 하나님품으로 부르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인배목사님을 회상하며 추모예배를 주관해주신 알버커키 한미침례교회 윤성열목사님, 알버커키 교역자협의회 목사님, 참여해주신 알버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계신 박목사님도 기뻐 하셨겠지요.

정성어린 사랑의 헌금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땅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글은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에 소개되었던 박인배선교사님의 선교보고입니다.

### 도오코의 노숙자들을 섬기던 IMB 선교사가 별세

2013년 6월 28일 By 수지 레인

서울-일본에서 노숙자들과 그를 찾아오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잘 알려진 박인배 IMB 선교사가 암으로 오래 투병하다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서울에서 별세했다. 향년 61세.

1993년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박인배 선교사와 그의 아내 그레이스는 2011년 기도주간에 남침례교인들에게 동경에서의 그들의 노숙자 사역을 간증했다. 노숙자들을 향한 박인배 선교사의 마음은 어느 비내리는 쌀쌀한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이 되었고 거리에서 기거하는 남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훈련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었다. 그는 한 일본 지역교회의 목사와 파트너가 되어 요요기 공원 노천 채플을 시작했다.

한국 태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박인배 선교사는 4천 여명으로 추산되는 동경의 노숙자들의 잠을 자는 공원과 기차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전도지와 먹을 거리와 성경과 등에 매는 가방이 없이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곤 했다. 바로 그 때 그는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보온병과 주먹밥을 꺼내고 그의 등에 매는 가방이 방석이 되어서 그 곳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말을 마치고 그의 전화번호를 주고 사람들을 다른 공원들에 있는 노천교회로 초청을 한다. 이런 단순한 행동이 키요시 수기오카의 삶을 구했다. 그는 박인배를 선교사를 그 공원에서 만났고 그의 "메시지"에는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공손하게 그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후에 수기오카가 자살을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박인배 선교사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는 박인배 선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다. 수기오카가 회상을 했다. "선교사님은 제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던 세계였습니다. 저는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IMB 선교사 마크와 웬디 호시자키는 그 공원들에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했다. 그들은 이런 복음 사역은 박인배 선교사가 전형적으로 하는 사역이라 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 전통적 신앙들과 부딪히면서도 항상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일대일 사역의 일인자였다.

마크가 전한다. "박인배 선교사와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노숙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인배 선교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금요일 호시자키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던 박인배 선교사가 소천을 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노숙자 공동체에는 충격과 슬픔이 있었다. 박인배 선교사가 복음 전도자로 훈련을 시키던 한 사람은 박인배 선교사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울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떠났기 때문에 슬프다고 했다.

이 복음사역의 정신은 IMB 선교사 칼톤 위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박인배 선교사의 이미지이다. 심지어 박인배 선교사는 한국의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침대 옆의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

위커가 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인배 선교사는 일본의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지상명령으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박인배 선교사는 노숙자들을 돌보고 먹이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세상에 집이 없는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렇다. 많은 노숙자들이 밥을 먹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거의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준다. 이것이 박인배 선교사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위커가 전한다. "박인배 선교사는 '핵심'적인 일,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를 그리워 할 것입니다." ■



# Cuba에서 주일학교 캠프

노혁천 집사

지난 10월 25일과 26일 1박 2일에 걸쳐 우리교회의 주일학교에 소속된 가족들이 CUBA CVA(Christian Vision Academy: N 36.12312°, W 106.91942°)로 캠프를 다녀왔다. 25일 금요일은 날씨가 그리 좋지 않겠다는 일기예보를 이미 들은 상태였다. 아니나 다를까, 5시 반경에 Albuquerque에서 출발했는데, NM550 도로에 진입하고 얼마를 가자니 기상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 비가 오는 건 둘째 치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75마일로 달리고 있는 차를 좌우로 흔들려댔다. 사실, 참가했던 다섯 가족이 대부분 다른 시각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정 중에 겪었던 험난한 기상 경험은 다소간 달랐다. 무엇보다 걱정이었던 것은 예정하기도 했고, 아이들도 무척이나 기대했던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비가 오던 터라 그에 대한 성사여부가 걱정거리였다.

어찌되었든, 저녁 8시 경이 지나자 대부분의 가족이 CVA에 모였고, 그곳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CVA 터에서 그곳 목사님의 거처가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건물에 도착해보니, 이미 예닐곱의 native American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순박한 검은 구리빛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가까이에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다른 남자 집사님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아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터였지만, 처음 그곳에 간 나로서는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아마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처음 대면으로 서먹한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 아이들은 그곳에 있던 강아지들과 후둑거리며 처마 밑으로 떨어지던 빗물을 장난감 삼아 금새 친해지고 떠들고 놀았다.

그리고 보니, 오던 길 중에 떨어지던 굵은 빗방울은 어느결에 잿아들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모두들 걱정해 왔던 캠프파이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실행에 들어갔다. 캠프파이어

장소는 CVA 부지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남자 집사님들과 남자아이들의 숙소로 예정했던 위쪽 건물의 뒤편이었는데, 앉을 자리와 불을 피울 자리가 준비되어있는 캠프파이어 전용 장소였다.

날은 추웠지만, 장작에 불을 피우고, 자유롭게 오가는 대화와 들뜬 기분을 담은 웃음, 그리고 여집사님들이 바리바리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Native American 아이들도 우리가 준비해간 음식을 즐겨 먹었고, 밝은 얼굴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였다.

차가운 날씨로 한 시간 반여의 캠프파이어를 서둘러 정리하고 12시 이전에 잠자리 준비에 들어갔다. 처음에 도착했던 아래쪽 건물에서는 여자 집사님들과 여자 아이들이 잠을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팀이 나오는 시설 좋은 곳이었다! 물론, 남자들의 취침소인 위쪽의 건물은 사뭇 달랐는데, 수십년 된 벽난로가 설치된 방에는 따로 난방시설이 없어서, 조그만 전기 라디오이더와 벽난로로 잠을 청해야 했다. 잠자리에서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는 함께 모인 밤이 주는 즐거움이 섞인 native American 아이들의 대화 소리였고, 하나는 화로에서 들리는 장작 타는 소리였다. 캠프파이어의 여운이 남아있는 그 시각, 장작 타는 소리가 들리는 깊은 산중의 조용한 밤의 느낌은 그렇게 쉽게 혹은 자주 오는 그것은 아니었다. 그칠 줄 모르던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잦아들었던 것 같다. 그 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12시가 조금 넘어 잠시 올라다 본 그곳 하늘의 모습이다. 평생, 그렇게 영롱한 별빛은 본 적이 없다. 밤하늘 보기를 즐기는 나로서는, 오라이언과 백조자리, 그리고 잘 알려진 북두칠성 곰자리와 한양 쪽배 건너가는 은하수를 그렇게 영롱하게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감동이었다.

이튿날, 맑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랜스레 들뜬 마음을



캠프파이어- 어른 아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



이튿날 순서: 이름 알아가기와 질문지 게임 등

가지고, 남자 숙소 건물 2층에서 할레시아 전도사님의 주관 하에 준비한 순서를 진행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이름 알아가기,” “질문지 게임,” 그리고 서로간의 스킨쉽을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게임을 했다. 모든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신나는 게임 시간을 가졌다.

점심 후에는 CVA 주변 지역 하이킹이 있었다. 모두 처음가보는 길을 따라 한 시간 정도의 산행을 했는데,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조금은 깊은 곳까지 다녀왔다.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은 자제하고, 갔던 길을 돌아와 하이킹을 마쳤다. Native American 아이들은 사전에 그네들 부모님과 오후 한시경에 만나기로 선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이킹에는 참가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함께 간 교회 식구들끼리의 정을 둘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식적인 행사는 그것으로 종료되었다. 그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거기까지 먼 길을 찾아가 교육으로 봉사하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말로만 듣던 native American 아이들을 만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보낸 그 시간들은, 첫날 저녁 올라다본 하늘의 영롱한 별무리처럼,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워진 NM550도로 위를 달리고 있자니, 그 넓은 곳에 홀로 남아 일하시는 목사님과 그 주변 어딘가에서 밤을 맞이하고 있을 native American 아이들이 시나브로 아른아른 떠올랐다. ■



식사시간



식사시간 식사기도



벽난로와 취침소



게임시간



성경 읽기

# 널려있는데 읽히지 않는 책 성경

김기천 목사

Rev. Kee-Cheon Ki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그 증거이다.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학교에서 성경을 공짜로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찾아와서 나누어준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내가 받았던 신약성경은 한글과 영문이 같이 인쇄되어 있어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직하고는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읽은 기억은 별로 없다. 지금도 어디를 가나 성경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되어있다. 호텔을 가보아도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이 놓여있다.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집 안에 최소한 식구 수만큼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많이 보급된 것이 성경책이다.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책이 되었지만 보급된 숫자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란 사실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성경책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성경 본문을 찾을 때면 색인을 보면서 뒤적거리는 사람을 보게 된다. 예배시간에 사회자가 성경본문을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말하니 성경에 “호박국”도 있었냐는 우스갯소리로 듣는다. “갈보리”라고 하니 “가을에 나는 보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성경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긴 한데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다. 여러 번이나 책을 펼쳐두고 읽기를 시도해보았다. 일반 책도 별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약 모두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도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 접어들면서 나오는 절기, 법규정, 제사규정, 성막양식 등을 접하면서 힘들어 한다. 용어 자체부터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신약부터 읽겠다고 결심하고 첫 장을 펼치면 누가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족보를 대하게 된다. 소리 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 본문에는 전문가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들어 있다.

이런 저런 시도들을 해보지만 자주 부딪히는 난해한 용어나

구절들로 인해 피곤함이 밀려들다가 졸게 된다. 졸음을 이겨나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내면서 읽기는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읽게 되니 결국 피상적으로 읽는 습관에 빠져든다. 피상적으로 읽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은근히 마음속에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또한 나름대로 성경본문으로 읽어가면서 스스로 어렵사리 뜻을 파악했더라도 쉽게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공부에서나 설교시간에서 해주는 설명을 들어보면 자신의 해석과 다른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이해했던 자신의 해석이 틀렸다면 자괴감과 더불어서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보아야 헛수고란 생각에 젖어든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설령 내용은 이해가 되었다고 해도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성경 읽기를 회피한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과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개발되고 제시되면서 교회가 다시 말씀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나마 성경을 회피하게 만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경을 끝까지 읽어나가자는 식의 “성경통독”이란 귀한 전통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다.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성경을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너무 통독만 강조하다보면 내용은 경시하고 읽은 횟수에만 만족하는 경향을 만들게 된다. 물론 어떠한 이유라든 성경통독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읽은 횟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 성장과 성숙

최성원 집사  
주일학교교사

University of New Mexico  
약학대학 연구원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최성원 집사입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을 돌보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의 재직들께서 설정하신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요약하면, ‘살아있는 예배’, ‘돈독한 성도 관계’, 그리고 ‘열심있는 선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1년째 임을 생각할 때 지난 30년의 성장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성숙하는 교회를 지향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분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그 밑 바탕에 있음을 생각하니 현 교회의 원로와 이제는 타 지역에 계시는 선배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장:** 자라나는 자녀와 교회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여 봅니다. 10대, 20대 그리고 30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합니까! 빠르게 자랄 때도 있고, 뼈뺌하게 자라는 경우, 기쁘게 하는 경우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과정을 지나 30대가 되면서 어른이 된다고 한답니다.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30년 역사를 보면 지난 세월 다른 교회에 세들어 살기도 했고, 이곳 저곳으로 옮기시며 예배 드리셨던 기록도 보았습니다. 당시의 어려웠던 생활을 추억하시며 눈시울 적시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말씀을 듣자면 50-60년대 생활고를 예기하시는 부모님 앞에서처럼 숙연해집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세대 30년은 이러한 수고가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목표:** 지난 몇 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느낀 것은 우리 온 성도가 좀 더 능동적인 일군이 되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2010년 11월에 제프 감리사님과과의 만남에서 감리사님은 “귀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년도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용적이고 헌신적인 회중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격려하며 밀어주는 교인들이 될 것이다. 또한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강해질 것이다” 내용의 답변을 드렸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많은 사역들을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배’, ‘돈독한 성도 관계’, 그리고 ‘열심있는 선교’를 하고 있지요. 주일마다 수요일 오후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각 성도의 가정을 보살피고, 사업장 마다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며 열심히 전도하고 멀리 캘럼, 쿠바, 파밍톤에 이르기 까지 원주민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체계화 구체화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곱 가지 영역에서 세부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1. **중요도와 시급성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 우리 교회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들은

세부적, 단계적 그리고 장기적이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진 목적을 단기간 짧게 설정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1, 3, 5 혹은 10년 등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재직 및 활동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 총무역사부, 봉사부, 친교부, 선교부, 전도부, 성가대, 주일학교 그리고 선교회 및 여러 속회가 있습니다. 가령 교회의 10 혹은 20년 계획이 있을 때 각 부서는 중장기적으로 사역의 목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해당 년도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예산 책정에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장기 목표 그리고 단계별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향에 따른 각 세부 사역의 중요도와 시급성, 우선 순위를 근거로 예산 배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산의 배분에 관해서는 조직의 특성 상 각 부서의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정책적 차원에서 분배를 년도별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인 2023년까지 후원 교회 한 곳을 설립한다면 2014년에는 지역 물색, 2016년 까지는 활동 부서를 위주로 한 분기별 탐방, 2018년 까지는 사역자 파송 등의 단계별 추진 목적을 부서별로 수립할 수 있겠고, 교회는 이 계획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2. **부서 강화:** 위에 언급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기존의 부서별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향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서의 책임자는 확고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가 있고 및 참여하는 부원은 사역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책임자를 신뢰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부서의 구성과 개편은 예상 가능한 시점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변화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초 그리고 수정 보완하는 변경은 중간 시기인 7월 초가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 해의 사역 계획과 실천 사항을 마련하고 연초에 전 교인이 모인 곳에서 각 부서별 사역 계획을 구두 및 문서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책임자는 의무감을 갖게 되고, 성도는 한 해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각 부서장이 각 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훨씬 수월하여집니다. 분기별 또는 한 해의 마무리는 각 부서별 활동 성과 보고를 하여 계획 대비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의 토대 위에 교회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의 활동이든 처음부터 대규모의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에서 중규모로 늘려 가되, 부서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성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험을 축적해 가야겠습니다. 그 결과로는 성도가 각 부서의 사역을 신뢰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차세대 지도자 양육:** 우리 교회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20대 대학생은 10년 뒤 교회의 장년층을 이룹니다. 지금의 10대가 10년 뒤에는 교회에서 가장 활발할 20대 청년이 됩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



은 전도사님과 교사의 지도하에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청년부는 두 분 집사님의 지도하에 모임을 갖고 있지요. 현재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곳이 대학/청년부입니다. 연중 몇 번의 격려 자리가 아닌 20대 청년을 위한 교육체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즉, 청년들을 교회 지도자로 키우는 구체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 합니다. 현재 수고하시는 두 분 집사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차원에서 청년들에 대한 신앙교육, 훈련, 부서별 활동 참여 유도등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생들이 주일 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매 참석 이상의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적합한 신앙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몇몇 집사님의 수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소통:** 위의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원활한 의견 소통 및 공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분기별 공식 회의나 각 경우별 소수 인원에게 의한 행사 실행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군을 지속적으로 발굴 양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일하시는 분만 일한다”는 하소연으로 이어집니다. 상호간 사전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각 개인 별 일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를 보면 몇 차례 연속 회의가 있는 경우 1차에 참석 못한 분이 2차 회의에는 참석하나 이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1차에는 참석했으나 2차에는 결석, 3차에 참석했으나 논의의 흐름을 잃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의 날짜간 간격이 길수록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못해서서 논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지 못하거나 이전 결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우선은 회의에 불참한 성도 개인의 잘못입니다. 어느 회의든 대상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는 대상자의 50% 참석 전제하에 수시로 실무진 선에서 예비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두번 결석한 성도일지라도 짧은 시간 내에 논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부서는 최소한 매주 1회 실무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안에도 교회 내외 및 성도 가정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행사든 사전에 책임자 및 부서원들이 모여 기도, 점검, 준비 그리고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부서의 논의 의결 사항은 각 부서장 및 부원, 경우에 따라서는 온 성도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시 이메일 혹은 게시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역할의 분배, 이동 및 휴식년:** 교회의 규모가 크고 일군이 많은 경우에는 부서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고 한 성도가 한 부서에서 수 십년씩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부서별 책임자는 2~3년 단위로 다른 부서에서 섬기도록 하지요. 이유는 교회 전체 및 부서별 사역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실제로 교회의 비전, 사역 목표를 설정하거나 예산의 책정, 분배, 집행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일할 일군은 부족합니다. 혹은 부서별로 몰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부서에서 섬기시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3년 간격으로 다른 부서에서 수고 하시는 것도 어떨까요? 재직-활동-선교회-속회-주일학교 등등. 이렇게 하시면 교회의 부서별 사역을 이해하실 수 있으므로 균형감있는 시각을 가지시고서 교회의 의사 결정, 홍보 및 예산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해당 부서의 사역 내용과 장기 비전, 사역 현장의 현실을 모

르신다면 어떻게 합당한 정책 결정과 예산 수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있는 경우지만 수년 간의 봉사로 지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분을 강권하기보다는 쉬지면서 여유있게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의 말씀은 한 성도께서 돌보실 수 있는 성도는 10명 내외가 적당하고 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직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 ‘지역사회’의 범위:** 우리 교회의 세번째 목표는 “전도를 위한 지역사회 영향력”입니다. 이 말씀을 한인사회의 영역을 초월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의 90% 이상의 이웃은 이곳 현주민 내지는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테두리를 한인 사회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심어줄 이웃의 범위에 대한 개념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행사에 한국과 관련된 이웃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전통을 부활절, 추수감사절, 교회창립일 기타 함께 축하할 계기마다 우선은 우리 교회 주변 동네 주민부터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7. 공동체 활동의 유익함:** 마지막으로 전체 성도가 함께 하는 공동체 활동의 유익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이외에는 함께 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요. 몇 년 전에는 계획했던 전교인 야외수련회도 저조한 신청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인이 함께 하는 야외수련회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면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야외 소풍이나 운동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친교 및 화합 그 이상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교우가 참여하는 행사는 몇 일만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담당 부서별로 계획하고, 실무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를 세웁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각 부서의 운영이 강화되고, 부서원들이 훈련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여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지요. 또한 신입 교우들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교회의 일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경험자의 경험이 새 성도에게 전수되는 것이지요. 즉, 새 일군을 양육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가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서로를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지요. 함께 준비하고 수고하면 친밀함도 돈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자주 만들자는 것이지요. 설령 첫 번의 행사에 참석하는 교우의 수가 미진해도 해를 더해가면 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때에 곡식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잔치 등으로 이곳의 주민부터 주님께 초대하는 것도 한 해를 보람있게 결산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희망 사항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노력을 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계획과 조직이 있어도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참여, 개인의 노력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 장 11절의 바울 사도의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교회로서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알버커키 부동산은 어떤가?

최귀분 집사

성가대원

Ingles Comany Realtors



알버커키는 샌디아 산을 동쪽으로 두고 콜로라도에서 멕시코까지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을 끼고 해발 5,355 피트(1632 미터)의 높은 위치에 있는 넓은 광야에 세워진 도시이다.

Sunport 국제공항에 2012년에는 5,382,223명이 드나들었고 현재 도시의 인구는 545,852명으로 발표되어 있다.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448,607 에서 21.6% 증가 했으며 리오렌초는 89,908 에서 65%나 증가해서 현재 인구는 131,561 명이다. 도시 인구의 구성은 44.5% 의 백인과 44.3% 의 히스패닉 과 11.2% 의 나머지로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큰 회사는 샌디아 연구소와 인텔이 있는데 각각 약 8,700명 과 3,500명이 근무하고있다. 또한 알버커키는 전 미국에서 순위 25번째로 도시 인구의 29%가 대학을 졸업했으며 또 11%나 되는 PhD 의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평가이다.

2010년에 발표한 평균 가족 수입은 연간 \$63,213 이며 개인당의 수입은 \$25,042 로 되어있고 현재 실업률은 7.8% 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 보자.

전국적으로 2007년 후반 부터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가격이 급하 된 이후로 베이비 부머 세대, 부동산 투자자들, 외국인 바이어들이 서서히 움직임으로 인하여 2년 전 부터 은행 매물, 숏세일이 줄고 일반 판매가 대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53% 까지 내려갔던 집값이 10-20% 올라갔다고 해서 아직은 성황 또는 셀러 마켓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들 하며 올 12월 안으로 집 장만 하기를 권하고있다.

알버커키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집 값이 4.81% 올라간 평균 집가격이 \$208,065이고 매매는 16.29%가 올라갔으며 리오렌초는 3.81%가 올라간 \$178,811 이고 매매는 2.44%가 올라갔다.

그러면 주택구입은 언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1. 이자가 제일 낮은 때가 지금이다.
2. 주택 가격이 최저이다
3. 렌트는 세금상의 혜택이 전혀 없다.  
(주택은 페이먼트에 포함되는 이자가 세금 공제 되기때문)
4.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에퀴티가 쌓이므로 자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택 매매의 기본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

**Seller(파는 사람):** 그동안 살아온 집에 대한 애착과 항상 손해 보지나 않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시장조사(CMA)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주위에 비해서 무작정 높으면 백년하청이라 시간 낭비 할

뿐 아니라 설사 기사회생으로 운이 좋아서 팔렸다 하더라도 전문 감정사의 가격 측정에서 미달이 되면 다시 가격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가 깨어진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Buyer(사는 사람)**는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모기지 대출 은행과 상담을 해서 미리 사전승인(pre-approval letter)을 받아 주택 구입시에 offer와 함께 제출 해야 유리하다. 아직 낮은 이자율이지만 대출 조건은 수년 째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없이 제출한 offer는 seller가 잘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살 때도 중요하지만 항상 팔 때를 생각해서 너무 독특한 개인 취향에 의존해서 집을 구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버커키에 정착한 지 31년째 접어들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한 지도 15년이 되는 나는 이렇게 생각 한다. 30여 년 전에 이곳의 모습이 어떠 했는지 또 공항의 모습은 어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Paseo Del Norte 부근에 1 Acre 당 \$3,000 정도이었던 그 때에 땅을 좀 사두었더라면하고 가끔은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기회까지의 기회를 잘 판단 하시기를 기대하고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 하실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기화가거(奇貨可居)의 유래에 대한 소개로 글을 맺는다.

진나라 소왕때 태자로 있던 안국군에게는 20여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별볼일 없었던 자초라는 아들이 조 나라에 인질로 보내졌다. 어느 날 여러나라를 떠돌며 크게 장사를 하는 여불위라는 상인이 자초를 알아보고 나중에 진나라의 왕이 되면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재산을 투자하고 키워서 왕으로 만들어 뽐으로써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천하통일을 이룬 그의 아들 진시황제 시대가 열렸다.

이때 부터 귀한 물건을 찾아서 멀리 내다 보고 투자를 한다는 기화가거라는 말이 생겨 났다. ■

##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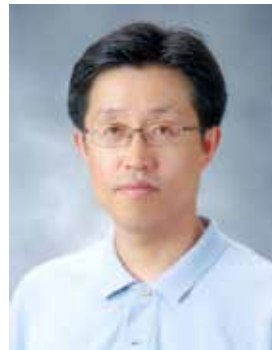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 수필

## 알버커키에서의 1년



노혁천 집사  
성가대원  
세종대학교 교수

아침 7시 15분. 자명종에 놀란 눈을 부비고, 머리를 서서히 부팅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조용하고, 아직은 좀 어두운 집안.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가 깨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며 샤워까지 마치고, 아직은 어스름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 전철역에 다다르는 때까지 40여분. 갑작스레 시끌벅적한 플랫폼에서 3, 4분여 기다려 전철을 타고 열마를 가서, 환승역인 상봉역에서 내린다. 경춘선에서 내린 사람들과 우리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로 상봉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학교로 향하는 7호선에 오르면 사람의 밀도는 더 증가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일년에 한 두 번은 아무 소리 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한다.

복잡한 출근 시간을 뚫고 학교에 도착해, 강의자료를 바로 집어 들고 강의실로 가면 9시. 1교시 시작시간이다. 학생들을 볼 때면 늘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한다. ‘오늘 강의는 좀 잘 되려나...’ 하는 걱정. ‘오늘은 그래도 녀석들이 기운이 좀 있어 보이는군’ 하는 안도감 등. 대학 때 신나서 공부하던 과목이고 학위과정과 교수라는 직업을 얻은 후까지 10여 년을 강의해온 내용이지만, 강의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이미 용량과 성능이 저하된 머리 탓도 있겠지만, 긴장과 기대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강의가 물리는 화, 목요일은 강의가 끝나는 오후 7시경이면, 말 그대로 파김치 상태가 된다. 그래도 강의가 잘 된 날이면, 마음도 상쾌하고 보람도 느끼곤 하지만, 학생들과의 교감에 실패한 날이면 그 우울감은 다음 강의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매주 있는 학과교수회의 시간은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과 다른 교수들과의 암묵적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늘 묵직한 느낌을 준다. 우리학과는 타교 타학과와는 달리, 협력이나 상호이해도 면에서 매우 좋은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학교에 자리를 잡으려고 열심히던 때에는 이런 류의 중압감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래도, 대학 동기들이 이따금씩 방문해서 들려주는 ‘그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인 안위감을 주기도 한다. 소위, 합사(합동사무소)라는 곳은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참여기업과 관계 기관의 사람들이 파견되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함께 일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1년에 몇 명씩 실신하고 응급실 신세를 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본사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연이어지는 야근과 회식자리 등에 시달린다. (요사이 경기가 좋지 않아 조금 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이 좀 애매하다.) 거기에 비하면, 학생과 동료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나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리라.

요즘에는 대학원생들 다루기도 녹록치 않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학원생은 냉장고에 코끼리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순종적 능력자들’이었지만, 요사이 대학원생들은

냉장고 문 여는 것도 귀찮아 할 정도의 학생들도 있다. 특히 국제화에 힘쓰고 있는 우리학과 특성상 베트남, 필리핀, 중동지역,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 문화적 차이,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 등으로 국내 학생들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 예전과 달리, 학생들에게는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대여섯 명 대학원생이 있으면, 1년에 교수 연봉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이거 준비하는 것도 녹록한 일은 아니다. (이거 어려워서 대학원생을 받지 않는 교수들도 종종 있다.)

“의사는 মানুষ만 좋은 직업이고, 교수는 자기만 좋은 직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교수는 그저 1년에 한 두 번씩 외국으로 ‘학회나’ 다니면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지만, 기실 요사이, 교수라는 직업도 점점 더 사회적 인식은 물론 자기만족의 측면에서도 그 선호도가 떨어져가고 있다. 사회전체적으로 경쟁과 효율에 기반한 생산만이 강조되면서, 사회 내의 대부분의 가치들이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으로 평가되는 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그런 이유중의 하나이고, 또 어떤 대상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경쟁사회적 관점에서의 가치가 강조되는 데에서 오는 몰가치의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굴렁쇠로서 함께 굴러가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창조적 유유자적’과 ‘독창적 고집’이 있는 그런 대학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따금씩 간절히 하게 된다.

그렇게 6년 정도 일하다 보니, 문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느낌이 들어오는 걸 피할 수 없었다. 다루고 있던 연구 주제도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은 느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좀 쉬고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래서 연구년이 있구나...”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알버커키로 연구년을 오게 된 것은, 이곳 UNM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분이 우리 연구실에 박사후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된 인연으로 가능했다. 특히 우리 세종대학과 UNM 공대 사이에 ‘학생교환’ 및 ‘공동(석·박사) 학위’에 대한 일을 함께 하면서 생긴 친분으로 어렵지 않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대학측에서 필요로 했던 외국 우수대학과의 MOU체결과 개인적으로 필요하던 연구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일거에 이루게 된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버커키는 한국으로 치면 수원 정도의 도시가 아닐까

〈14페이지로 계속〉

## 기도문

조영애 집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감사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 각자 가슴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이 빈자리를 채울수 있는 전도의 능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음속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주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바라볼수 있는 훈훈함을  
주시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고 봉사하는 손길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수고의 손길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단을 위해 수고 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 생활상식

### 기부금 공제 세법에 관하여

김&김 합동공인회계법인

교회나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501(C)(3)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  
에 현금이나 기부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나 정치단체, 혹은 선거후보에게 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기부의 대상이 현금일 경우가 많지만 현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에 그 가치가 5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  
Form8283을 이용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 대가로 상품이나 티켓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경우 그 상품이나 티켓이나 서비스의 가치의 해당하는 액수만큼  
은 공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야구나 농구 경기 티켓이나 공연 티켓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만약에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주식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 당시  
의 현재가치를 사용해야 하며 현재가치를 'Fair Market Value(시  
장가격)'이라고 합니다.

옷이나 집기를 기부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상태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여야 공제신청에 적합합니다.

기부금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기  
록이 필요하며 그 기록은 은행기록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기부단  
체에서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면 확인서에는 기부액수, 기부날짜 그리고 기관이름이 반드시  
요구되며 기부받은 자선단체가 국세청에서 인정된 비영리 단체인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5,000달러 이상이 되는 물품을 기부 하였을 경우에  
는 감정 (Appraisal)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비영리 단체에서 기부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이는 'Written Acknowledgement'라고 하  
며 그 증명서에 명시된 날짜는 세금보고서를 파일하는 시점과 같  
거나 빠른 날짜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직접 현금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 직접 현금한 경우에  
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금액을 현금해 당해 연도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  
음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시애틀N에서의 전재기사 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웹사이트에서 더 보실수 있습니다. 편집자〉

〈www.seattlen.com〉



## 나의 뉴멕시코(My New Mexico)

시카고(Chicago)에서의 생활을 추억으로 남기며 뉴멕시코에서 은퇴하기로 작정한지 4, 5년이 지난 지금, 리오란초(Rio Rancho)에 집을 장만하고나니, 꿈이 현실로 다가와 더이상 꿈을 꾸지않아도 될것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평가할때, 가령 빈곤층비율, 범죄율, 은퇴자금에 세금 부과하는 여부등으로 평가할때 Best 10에 드는 뉴멕시코는 아니지만, 사막성기후에 서부영화(Western Movies)의 배경으로 많이나오는 미국남서부 지역을 좋아 하여 이곳을 방문할때마다, 운전중 너무 주위 경치에 도취 되지 않도록 집사람이 주의를 받곤 하였습니다. 겨울은 있지만 온화한 날씨에 연중(年中) 300 ~ 330일 정도가 햇빛나는 날인 데다가 (New Mexico의 별칭이 Sun Shine인 Land of Enchantment이니 말할나위가 있겠습니까?) 여름에 습도도 거의 없고, 공기도 대체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더이상 바랄것이 없는곳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곳을 좋아하는지는 집사람이 친구인 Gloria에게 보낸 편지에, 저의 이곳에 대한 향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몇줄만 소개합니다.

Hi, Gloria,

My husband wakes up every morning with New Mexico on his mind. He is so happy to have his dream of living in the southwest become more real.”(안녕 글로리아, 우리 남편은 매일아침 뉴멕시코 생각으로 아침에 깬다. 남서부지방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이 현실로 서서히 다가오자 좋아 미치는것 같다.) “I think I told you that when he was growing up in South Korea, the main television network was the Armed Forces Network which showed all the old westerns and shows from the 50s and 60s.” (내가 얘기했듯이 그이는 한국에서 자랐는데, 당시 TV는 미군방송이 주(主)였는데, 50년, 60년대 서부영화를 많이 보여 주었 단다.) “The main movies were American Westerns.” (대부분의 영화는 서부영화였던다.) “His perception of America is not the cities(they have those in Korea), or farmlands or even the mountains of the Northeast. To him it is the Southwest.... something that is unique to our USA. I would never take that dream from him!” (그가

이상목 교수  
DeVry University



생각하는 미국은, 도시 (한국도 그런 도시는 많아)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과 지형이 비슷한 동북(東北)지방도 아니야. 그이 예겐 미국에서도 특이한 남서부 지방이야. 난 그런 생각에 빠진 남편의 꿈을 빼앗을순 없어!)

인디안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넓은 벌판이 많은 이곳을 샌디아산(Sandia Mountain)이 더욱 멋지게 합니다. 30여년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이사하면서 본 알버커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산마루의 집들이 제게는 한쪽의 그림같이 보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샌디아산 덕분에 길일을 염려가 없다는 알버커키가 아닙니까? 모래바람이 부는날도 그저 좋기만 합니다. 앞뜰과 뒤뜰이 대개는 작은 돌로 조경이 되어있는 탓에 잔디깎을 필요가 없어(보기는 좋지만 잔디 가꾸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집을 몇주 비워도 티가 나지 않아 걱정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그러나 바퀴벌레(cockroach)를 비롯한 벌레들이 상대적으로 많은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제가 어떻게 “광야의소리”를 알게되었는지를 말씀 드리자면, 수년전에 YouTube에서 이경화장로님의 하모니카연주로 Red River Valley(두어 소절만 연주하셨는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를 연주한 것을 듣고 딱 한번 e-mail을 주고받았는데, 지난 10월달에 한국 식품 상점도 알아볼 겸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Eubank 길에있는 아리랑식품점에 들러 한국음식을 먹던중, 주인 아주머니한테 혹시 하모니카 잘 부시는 은퇴하신 분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었는데, 광야의소리를 주시면서, 교회장로님이라고 하시며, 교회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연락이 되어 몇차례 email을 교환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정착할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는 날이기를 바라면서 끝 맺습니다. 시카고에서... ■

### 유머

### 할머니의 감사기도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이 한국에 왔다가 새학기를 앞두고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눈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사고로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국과 학사 일정이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다쳤다는 소식에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할머니는 풀이 죽어있는 딸과 손녀를 보고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대꿀빡(?)이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몽맹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뼈(?)가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합니다.”

두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던 모녀는 할머니의 유머러스한 감사 기도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박장대소 포복절도로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사투리를 쓰시는 것도 웃음을 터지게 했지만 보다 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해석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모녀는 더 큰 힘과 웃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기 이 할머니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감사기도를 하실수 있길 바랍니다.■

## 대학에 가는 목적



대니얼 홍  
교육전문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니체는 이렇게 조언했다. “결혼은 긴 대화다. 반려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자(여자)와 노년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최종 등록대학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학생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 끝에 와있는 구글시대에 굳이 대학에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젠 대학이 지식을 쌓게 하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기관이 아니라 순위 올리기와 인간됨을 다하는 브랜딩회사라는 것을 아는 마당에, 자아 발견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면 전공, 교내외 활동, 캠퍼스 환경, 재정 보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년간 꾸준히 대화를 나눌 교수와 동료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다. 즉 만남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대학생의 학업 성취에 관한 논문이 지난 1970년대부터 25편 넘게 발표됐다. 학업능력, 재정상태, 가정환경, 목적의식 등 다양한 여건이 작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료학생 그리고 교수와의 만남과 대화에 달려 있다. 그 기회가 많은 학생일수록 자긍심, 성취도가 높고 졸업도 제때 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캠퍼스에는 스마트폰 스타일 만남이 횡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만남과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잠자리에 든 부부는 서로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동영상, 게임을 각자 즐기고, 말하기 싫스러운 일은 카톡으로 대신한다.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 마주앉아 있지만 서로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대학 강의실에도 마찬가지. 강의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자리에 앉기까지 그리고 강의의 들으면서도 학생은 스마트폰과 눈을 맞추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 받거나 게임을 즐긴다. 교수는 교수대로 파워포인트를 읽어 내리느라 등을 돌리고 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

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각자 바쁘게 서로 편전을 피운다면 뭐 하러 강의실에서 만났을까. 차라리 각자 사무실 혹은 집에서 문자를 날리거나 화상통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참된 교육은 만남과 대화에서 이뤄진다. 만남을 통해 영혼에 활기가 생기고 생각에 지각변동이 온다. 자아발견, 실현, 성취를 찾아가는 계기가 된다. 플라토가 소크라테스와 만나 철학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고,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를 만나 투자에 눈을 뜨고, 드류 파우스트(현 하버드 총장)가 메리 던 교수를 만나 여자의 길을 새롭게 개척한 것처럼 말이다. 인간은 손으로 매만지며 키우는 식물도 아니요, 매와 당근으로 행동을 길들이는 동물도 아니다. 산소, 물 같은 자연을 만나야 인간 생존이 가능하듯,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신선한 충격이 절대 필요하다. 그에 따라 잠재력이 발굴되고 자신의 몫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삶이 바뀐다.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이 인간이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긴 결과인 것처럼, 대학 선택에서도 만남과 대화를 소홀히 여긴다면 군중 속 외로움에 사무칠 것이요, 대학 입학사정처의 마케팅 제물이 될 것이다. 쏟아지는 대학 선전유인물에 눈 멀고, 귀먹고, 머리가 텅 빈다면 4년간의 긴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과 대화가 없는 교육은 분명코 시간, 정력, 돈 낭비에 불과하다. ■

〈이 기사는 시애틀N에서의 전재기사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웹사이트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www.seattlen.com〉

### 〈알버커키에서의 1년〉

#### 11페이지에서 계속

싶다. 굳이 수원을 들먹이는 건, 나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주로 수원에서, 대학생활은 잠시 서울에서,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생활은 대전에서였고, 그러다가 직장을 얻어 다시 서울 근교로 가게 된 나로서는 복잡한 대도시 생활은 그리 달갑지 않다. 2004년 뉴욕 맨하탄에서의 포닥생활도 서울과 별반 다름 없는 ‘그냥 그런’ 세계 동시적 도시 생활로 기억된다. 포닥생활이었으니, 힘들기도 했었지만, 이런 생각은 여유로운(물질적이 아닌, 정신적) 알버커키에서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더 뚜렷해진다. 이곳의 생활은, 특히, 생활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그 대부분의 이유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겠다. 세상의 바쁨의 일상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달리, 이곳에서의 삶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랬어야 했었지만, 웬지 바쁘게만 돌아가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은 늘 학교의 일들과

허드렛 주변 일들에 쏠렸던 것 같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하지만 우리 전체인생의 1.5%를 초과하는 긴 시간이고, 또 사람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알버커키에서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 1년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교회 담임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새로 태어남을 위해서 매우 귀중한 1년이라 믿는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주변의 유혹에 늘 흔들리며, 어떤 때는 유혹이 없어도 스스로 넘어질 정도로 나약하다. 이는 영혼의 문제이다. 주변의 세속적 환경에 휘둘리며, 영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던 것이 지난 6년간이었다면, 지금의 그것은 그 동안 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의 과정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곳 알버커키에서의 1년은 내게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힘의 재충전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거듭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곳에서 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두 번 잡는다. ■



뉴멕시코 소개

# 나바호 인디언은 누구인가?



이경화 장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우리 교회에서는 쉼락 (Ship Rock) 지역에서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하고 계신 전종범 목사를 수 년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큐바지역에 계신 이덕재 목사님을 도와 나바호 어린이 선교 활동으로 여러 교우들이 봉사 해오고 있다. 컬럼에 계신 조성현선교사도 지원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에 관한 상식은 어느 정도 인가? 인디언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 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한국 위키백과에 기여한 이경화 장로(Wiki ID: khlhmusa)의 글로서 나바호족에 관한 간략한 역사와 문화와 여러가지 상식들로서 그들을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바호(Navajo) 인디언은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온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다. 나바호 족으로 등록된 부족인구는 30만 명이 된다. 미국내에 있는 인디언 부족의 수는 565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족이 나바호 부족이다. 대부분의 나바호인은 연방정부에서 정해놓은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나바호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지역은 애리조나 주의 동북부와 뉴멕시코주의 서북부와 유타주의 남동부가 포함된다. 미국내에 있는 원주민 부족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71,000km<sup>2</sup>)을 차지하고 있다. 나바호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하나의 자치국, 곧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으로 부르며 그들의 정부가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을 다스리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 있는 윈도우 락(Window Rock)을 수도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바호인들은 나바호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바호 족은 스스로의 이름을 디네(Diné)라고 부른다. 원래 “나바호”란 단어는 푸에블로 인디언의 테와(Tewa)언어로서 “들판”(Field)이란 의미의 단어에서 나왔다. 넓은 들판에서 사는 인디언이라는 의미로 스페인사람들이 나바호의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것이 세월이 가면서 디네 인디언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것이다. 나바호를 영어식으로 Navaho로 쓰지 않고 스페인어로 Navajo로 쓰는 것도 스페인 이주자들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 기인된다.

## 역사

나바호 족과 아파치족의 언어가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북부 인디언의 언어인 아타바스칸(Athabaskan)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아파치족과 나바호 족은 캐나다 서북부 지역에서 지금 미국의 남서부로 서기 1300년 경 이주해 내려온것으로 믿어진다. 유목민 생활을 해온 나바호 족이 푸에블로 인디언과 접촉하게 된 후 농업기술을 배워 옥수수와 콩을 농사짓기 시작했다.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 이주자와 접촉하게 된후에는 양과 염소 등의 목축도 시작하게 되었다. 백인 이주자들이 나바호 족의 땅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의 영토가 된후 1850년 포트 디파이안스(Fort Defiance)에 연방군의 주둔지를 만들고 나바호인들과의 갈등을 견제하였다. 1863년 키트 칼슨 대령은 나바호 인디언의 집과 농작물을 불태우고 나바호인디언 부족을 뉴멕시코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시켰다. 300 마일의 긴 여정(롱워크(Long Walk)라고 부른다)을 추운 겨울에 강행했고 이로인해 많은 희생이 있었고 4년간 신개척지에서도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희생이 있은후 1868년 연방정부는 강제이주의 잘못을 인정하여 고향으로 복귀를 허락했다. 1880년대 철도가 놓이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나바호 족의 모직과 양탄자, 수공예품등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었다.

나바호 족이 거주한 지역에서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발견되자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바호 족을 대표할수 있는 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38년 최초의 선거를 통해서 78명의 위원 선출을 했고 정부 기관을 윈도우락(Window Rock)에 두기로 정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때 나바호 출신 군인은 미해병대의 코드 토크(Code Talker) 통신병으로 이오지마, 오키나와, 사이판 전투에 투입되어 활약했다.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Navajo Indian Reservation)이 1923년 이후 나바호 족의 통치구역의 공식 이름이 었는데 1969년 4월15일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또는 나바호國)으로 공식이름을 바꾸었다.

## 언어



나바호 국기.

나바호어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북부의 인디언이 쓰는 아타바스칸(Athabaskan)어(語)에 속하는 언어이다. 음조(또는 성조)의 언어(Tonal Language)라고 할수 있다. 음조의 높고 낮음이 말의 뜻을 분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동사의 활용이 많아서 동사 중심의 언어(“Verb-heavy” Language)라고도 한다. 형용사가 따로 없고 동사속에 포함되어 있는것도 특징이다. 문법적으로 4인칭에 해당되는 동사변화가 있다. 상대방을 지적하지 않고 공손한 의사 표시를 한다든지 훈계하는 말 또는 죽은 사람을 일컫는 말을 할때 쓰인다. 명사의 의인화도 특이하다. 모든 명사의 의인화에는 순위가 있다.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사람/번개는 제일 높은 순위가 되며 이어서 (2)어린이/큰 동물 (3)작은 동물 (4)벌레 (5)식물 (6)추상명사.

어순에 있어서 순위가 높은 단어가 앞에 와야 된다. 두 개의 명사가 앞에 나열되고 나서 주어와 목적어를 정해 주는 것은 동사 앞에 붙는 접사 이(yi)와 비(bi)가 담당한다. 예를 들면;

(1)	아슈키(Ashkii)	아테드(at'ééd)	이닐니(yiní'í')
	남자아이	여자아이	yi-바라본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바라본다.' (첫번째 단어가 주어다)		
(2)	아슈키(Ashkii)	아테드(at'ééd)	비닐니(biní'í')
	남자아이	여자아이	bi-바라본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바라본다.' (두번째 단어가 주어다)		

그러나 (3)의 예는 잘못된 말이다. 의인화 순위가 잘못된 예이다. 새는 여자 아이보다 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3)	씨디(Tsidii)	아테드(at'ééd)	이시타시(yishtash).
-----	------------	-------------	-----------------



윈도우락에 있는 코드토크 기념 동상

	새	여자아이	yi-쪼고있다
	'새가 여자 아이를 쪼고있다.'		

아래의 (4)의 예문이 옳은 말이다.

(4)	아티드(at'ééd)	씨디(Tsidi)	비시타시(bishtash).
	여자아이	새	bi-쪼고있다
	'새가 여자 아이를 쪼고있다.'		

## 나바호 암호

나바호 암호(Navajo Code)는 2차 대전때 미 해병대가 나바호 족 지원병을 통신병으로 양성하면서 개발한 암호를 말한다. 나바호 언어를 암호문으로 쓰게된 아이디어는 필립 존스톤(Philip Johnston)에서 나온것이다. 그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목사의 아들이었다. 나바호 족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다. 또한 1차대전에 참전했던 제대 군인이었다. 이차 대전이 일어났을 당시 나바호 언어는 나바호 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언어였던것을 감안 해서 나바호언어를 군사용 암호 통신에 사용할것을 그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 크레이튼 보겔(Clayton B. Vogel)소장에게 건의했다. 보겔소장은 곧 나바호인 지원병을 구해보도록 해병대 징병관 두사람을 나바호 족장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다. 나바호 족장은 곧 단파방송을 통해서 미 해병대에서 지원병을 구한다는 방송을 하였고 29명의 지원병을 일차 선발할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는 자신의 나이를 속여가며 자원한 나바호 청년들도 있었다. 해병대 특유의 강한 훈련을 모두 잘 이겨내자 다음으로 암호교육에 들어 갔다. 나바호 암호를 만들고 암호 통신 교육을 마친 뒤에 이 교육을 받지 않은 나바호인을 대면시켜서 암호문을 해독할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한 결과 나바호 언어를 알지라도 암호문은 해독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2 차로 200명의 지원병을 더 모집하여 교육시키게 되어 나바호 코드토크(Code Talker)란 암호통신병이 생긴 것이다. 코드토크는 태평양 전투에 투입되었고 일본군은 이 새로운 암호를 도저히 해독할수가 없었다. 이치마섬 작전을 위시하여 여러 작전 성공에 큰 공을 세웠다.

암호의 기밀유지를 위해서 전투지역에서는 일체의 문서화를 금지하고 기억력에만 의존케 했다. 그런 관계로 암호 작성도 외우기 쉬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보면:

군사용어	나바호어	의미
------	------	----

정찰기	이네아스차	올빼미
급강하폭격기	치디	새매
항공모함	씨디네이예의	새수종매
잠수함	배쉬로	쇠물고기
전함	로쏘	고래

알파벳의 각각의 글자도 나바호어로 바꾸었다. 가령 "A"는 "Ant"(개미), "Apple"(사과), Axe(도끼)의 첫자임으로 나바호어의 개미, "올라치"나 사과, "배라사나"나 도끼, "쎄닐"로 암호화 했다. 나바호 코드토크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전과 월남전에서도 활약했다. 나바호 코드토크는 1968년 까지 군사기밀 이여서 나바호 코드토크에 대한 일체의 언급 조차도 금지되었다. 군사기밀이 해제된 1969년에 이르러서야 나바호 코드토크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했고 뒤 늦게 이들의 공을 세상에 알리고 표창을 한 행사가 시카고에서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8월14일을 내셔널 코드토크의 날로 정하고 코드토크에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2007년 12월 13일 미 하원에서 코드 토크 공로 인정 결의서(Code Talker Recognition Act)를 통과시키고 메달을 각 참전용사에게 수여했다.

## 지리

나바호인디언의 보호구역은 롱워크(Long Walk)이후 1868년에 설정되었다. 3백5십만 에이커(14,000km<sup>2</sup>)에 해당되는 37도선을 북쪽 경계로 한 네모난 땅이었다. 나바호 네이션 기에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것이 이를 의미한다. 그 후 연방정부와 계속 교섭을 하여 온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를 넓혀서 현재의 면적은 1천6백만에이커(71,000km<sup>2</sup>)에 이르게 되었다. 나바호 네이션 기에 갈색으로 표시된것이 이를 의미 한것이다. 여러 인디언 부족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보호구역을 가진 것 이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면적에 가깝다. 한국의 남한 면적에 비교하면 약 70%에 해당된다. 고원지대이며 가장 낮은곳이 해발 828m(2,760피트) 이며 가장 높은 산은 3,116m(10,388피트)까지 이른다.



캐니언 디셰이 남쪽 립에서 본 경치.

수도인 윈도우 락(Window Rock)은 해발 2082m(6830ft)가 된다. 이 지역에서는 각아지른 메사 언덕의 경치를 많이 볼수 있다. 캐니언디셰이(Canyon de Chelly), 쉽락 뿔족바위(Shiprock Pinnacle), 모뉴먼트밸리( Monument Valley), 추스카 마운틴(Chuska Mountains)이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나바호



네이션은 동서남북의 경계에 있는 네 개의 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여기고 있다. 나바호기에 네 개의 산이 이를 표시하고 있다. 동쪽 산은 마운트 블랑카(Mt. Blanca), 남쪽의 산은 마운트 테일러(Mt. Taylor)(뉴멕시코 주 그랜트 근방에 있다), 서쪽은 산프란시스코봉(San Francisco Peak)(애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 근방에 있다), 북쪽의 산은 마운트헤스페루스(Mt. Hesperus)이다.

## 가족 제도

나바호 족의 사회는 모계(Matrilineal)중심의 처가거주사회(Materilocal society)이다. 결혼을 하면 남자는 처가 집에 가서 살며 유산은 딸에게 전승되고 재산 관리는 여인들의 몫이었다. 남자는 밖에나가 사냥을 하며 가정과 부락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았었다. 집안일을 비롯하여 양과 염소등을 키우는 일은 여인들이 맡아 했다. 현대에 와서는 사냥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직업의 다양성이 생기므로 인해 이런 전통에 많은 변화가 있다.

## 종교 예식

자연의 모든것은 생명이 있고 신성하다고 나바호 인디언은 믿고 있다. 동서남북 네곳에 있는 신성한 산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으며 이들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채로운 예식을 행하였다. 예식은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다. 축복의 예식은 행복과 지혜를 추구하는 예식이며 악령을 대적해서 이를 물리치는 예식이 또하나의 것이다. 병고침을 위해서 행하는 예식은 가장 잘 알려진 예식이다. 메디신맨(Medicine Man)이 노래를 부르며 모래그림을 그리는 예식이 따른다. 모래그림은 채색한 여러 색깔의 모래로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 일광절약시간

애리조나 주는 미국내에서 유일하게 일광절약시간을 쓰지 않는 주이다. 나바호 네이션은 대부분의 땅이 애리조나 주에 속해 있어도 일광절약시간을 쓰지않는 애리조나 주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여름에는 일광절약시간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나바호 네이션이 속해있는 뉴멕시코 주와 유타 주가 일광절약시간을 쓰기 때문에 나바호 네이션 안에서의 통일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애리조나 주의 방침을 따를수가 없기 때문이다.

## 경제

나바호 경제의 핵심은 양과 소의 목축, 모직물과 양탄자, 은과 터키석 세공품에 있었다. 최근에 와서 모래그림, 깃털, 도자기 제품이 추가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우라늄 채광이 한 때 큰 수입원이 되었으나 우라늄은 시장 수요가 줄어 들어서 1000여개의 광산이 폐광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광부들이 오염되는 희생이 있게되었다. 석탄은 중요한 지하자원이 되고 있다. 나바호 네이션 소득의 51%는 광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인구의 실업율은 56%가 되며 극빈자로 구분되는 가정이 43%가 되어 경제 개발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업자 구제와 소득 증대를 위해 나바호 네이션에서는 최근에 와서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 했다. 뉴멕시코에 있는 겔럽에 카지노를 2008년 열었고 플래그스태프에도 공사가 시작되었다. 경제적인 쉬운 해결책을 택함으로 인해 범죄, 도박 중독등 더 어려운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것 이라는 부정적 비판도 나바호인에게서 나오고 있다. 나바호 네이션의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다. 주민의 약 1/3 또는 18,000가구가 전기의 혜택을 못 받고 살고 있다. 나바호땅에 거대한 화력발전소가 있지만 전기는 먼 곳으로 송전되고 인근 지역의 나바호인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려는 새로운 방안으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가정용 전력

공급이 대두되고 있다. 알버커키에 있는 샌디아 연구소에서 개발한 태양전지가 나바호 가정에 설치되기 시작 한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간주된다.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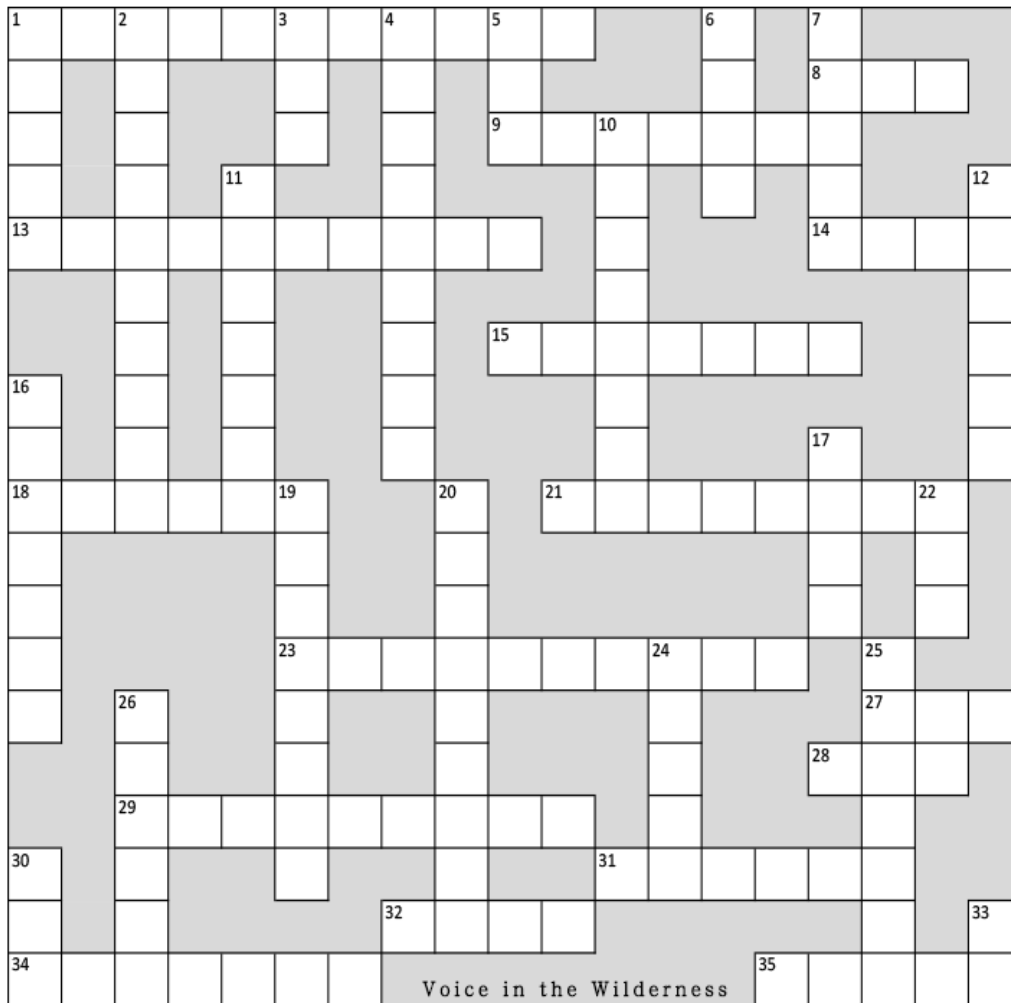
나바호의 모래그림(Sandpainting or Dry Painting)은 종교예식에 쓰기위해 시작된 것이다. 모래그림은 “신(神)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라고 나바호인 들은 믿고있다. 환자의 치유를 기원 하거나 농사가 잘되어 좋은 수확을 기원하는 예식을 할때 모래그림이 그려진다. 완성된 그림은 해 지기 전에 땅속에 묻어서 처리한다. 그림속의 대상은 신화적 요소들이 많이 그려진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성산(聖山)을 상징한다든지 예식에서 행하는 노래와 춤을 묘사하는 그림도 그려진다. 나바호의 모래그림은 1970년대에 와서 젊은 나바호 화가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그림이 아닌 추상화, 풍경화, 정물화등의 일반 미술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나바호인의 직조기술은 푸에블로 인디언에게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이주자로부터 양을 얻어 목축을 하면서 섬유대신 양모 섬유로 직조기술을 키워나갔다.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나바호 여인들이 만든 담요제품은 서방세계에 보급되면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1800년 말에 이르러 기계화된 직조제품이 나오자 나바호인은 양탄자 제조로 방향을 바꾸었다. 나바호 러그(Navajo Rugs)라고 부르는 ‘러그’는 번역하면 ‘깔개’ 또는 ‘양탄자’가 되지만 요지음에 와서는 바닥에 깔기 보다 벽에 걸어두는 예술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조의 품질도 우수하지만 나바호 특유의 기하학적 디자인이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사고 있다. 나바호인들은 은과 터키석(터코이스:Turquoise)을 이용한 장식품 수공예품에 있어서도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터키석은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에서 많이 나오는 청녹색의 준 보석들이다.

## 나바호 출신 주요인물

- 노타 비게이 3세(Notah Ryan Begay III )(1972-) : 아메리칸 프로 골퍼. 알버커키에서 아카데미 고등학교를 나오고 스탠포드 대학으로 진학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타이거우즈와 골프팀 친구였다. 1995년 프로로 데뷔. 인디언 어린이를 위한 자선단체를 운영중이다.
- 프래드 비게이 박사(Dr. Fred Begay)(1932-) : 핵물리학자. 한국전 참전용사이다. 고등학교도 못나왔으나 한국전쟁에서 돌아온후 뒤 늦게 뉴멕시코 대학에 입학하여 1961년 졸업한 뒤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다(1971).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로 첫 부임하여 이사 갈때에 그는 여섯아이를 픽업트럭에 태우고 로스 앨러모스로 드라이브해 갔다. 연구소 재직중에도 나바호 인디언을 위한 여러분야에 자원해서 활동했다. 내셔널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1994년 표창(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
- 알 시 골만(R.C.Gorman) (1932 - 2005): 화가. 나바호 네이션의 캐니언 디셰이 근방에서 출생했다. 뉴멕시코 타오스에 거주하면서 인디언 여인을 작품화 했다. 인디언의 피카소라는 별명이 붙었었다.
- 알 칼로스 나카이( R. Carlos Nakai)(1946-) 플루트 연주자. 1983년 부터 시작해서 35개가 넘는 음반을 발표했다. 그의 음악은 고전에서 뉴에이지, 인디언, 재즈 음악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었다. 2009년10월17일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인디언 음악에 공헌을 인정하는 인디언 인간 문화재상을 받았다. ■

뉴멕시코주의 상식을 점검해 보는

## Crossword Puzzle



## ACROSS

1. 뉴멕시코주에서 제일 큰 도시 이름은?
8. 뉴멕시코 주를 대표하는 질문(State Question)은 “< > or < >?” 이다. 첫번째 단어는? 멕시코 음식 주문할때 자주 듣는 질문.
9. 뉴멕시코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
13.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옆에 있는 도시.
14. 라스크루시스에 있는 주립대학교 이름을 약자로?
15. 뉴멕시코의 주도는? (두 글자 사이 간격 없이 쓴다면)
18. 뉴멕시코와 텍사스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 Cannon 공군기 지가가 있고 가까운 곳에 Eastern Univ. of New Mexico가 있다.
21. 뉴멕시코 주지사 이름
23. 알버커키 서쪽 메사에 있는 페트로 그림 네셔널 모뉴먼트의 < 페트로그립>?
27. 1889년에 설립된 알버커키에 있는 주립대학교의 약자
28. 알버커키에 있는 Community Colledge. ( 2006년에 TVI로 불리던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29. 뉴멕시코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 (두 글자 사이 간격 없이 쓴다면)
31. 나바호인디언의 <나바호>?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
32. NBC Radio 프로그램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된 Truth or Consequences. 이 이름을 줄여서 부쳐쓰면?

34. 산타페 로레노 성당의 회선 계단이 유명하다. <로레토>를 영어로 쓰면?

35. 리오란초에 있는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 이름

## DOWN

1. Sky City란 별명을 가진 메사위에 사는 푸에블로 인디언 이름





2. 알버커키지역의 <버나리오> 카운티 이름? 스페인어이다.
3. 연합감리교회의 약자?
4. 북미에서 네번째로 긴 뉴멕시코를 질러 흐르는 강(두 글자를 부쳐쓰면)
5. 라스웰에 나타 났었다고 전하는 비행접시를 약자로?
6. 알버커키에 있는 공군기지의 이름의 약자.
7. 뉴멕시코 주를 대표하는 질문은 "< > or < >?" 이다. 두번째 단어? 멕시코 음식 주문할때 자주 듣는 질문!
10. 산타페 북쪽에 있는 도시. 타오스 방향길과 차마 방향의 갈림길이 있는 도시.
11. 알버커키 북쪽 리오그란데 강을 막은 저수지 이름. 댐의 크기는 북미에서 10번째가 된다.
12. 부락을 형성해서 사는 인디언 부족을 일컫는 이름은? 뉴멕시코에는 19개의 이런 부족이 있다.
16. 뉴멕시코텍(광산공과대학)이 있는 도시이름.

17. 알버커키에서 방송되는 Ch. 5 PBS TV의 CALL SIGN?
19. Four corner지역에 있는 Town이름. 뽕죽 바위가 유명하다.
20. 뉴멕시코주에서 세번째로 큰도시이며,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22. 뉴멕시코 주 기(Flag)에 있는 원형 무늬는 < \_ > Pueblo 인디언이 사용하던 해를 상징하는 무늬이다.
24.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꽃(State Flower) 이름은?
25. 알버커키 국제 공항 이름은? 해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
26. 뉴멕시코 남쪽, 은이 발견되어 타운이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동(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도시. "< > City"의 앞 글자?
30. 영어의 "OF THE"에 해당되는 스페인어. 예:I-25교차로의 도로이름, Paseo < > Norte의 가운데 글자.
33. 영어의 "THE"에 해당되는 스페인어. 알버커키 고등학교 < > Dorado HS의 첫 글자.

정답은 [kumcabq.com/puzzle](http://kumcabq.com/puzzle) 웹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 시간: 오후 12:00 pm  
\$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http://home.kcmusa.org/disciples)

###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505) 238-3551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이준우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http://www.santafekorean.org)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http://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453-5461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b>알버커키 Albuquerque</b>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b>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수잔리 Susan Lee</b> Coldwell Banker (505-934-8949)	<b>Hair &amp; Co(황경희)</b>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b>김미경 Mikyong Kim</b>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b>A-1 Oriental</b>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b>건축/페인트 Painting</b>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Arirang Oriental</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최귀분 Gui B. Bonaguidi</b> The Ingles Company Real- tors (505-249-8686)	<b>Matthew Lee's Hair Style</b>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치과 Dental Clinic</b>
<b>Asia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b>공인회계사 CPA</b>	<b>세탁소 Dry Cleaners</b>	<b>Nob Hill Barber Shop</b>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Kim's Oriental: 2306 Morris</b> NE ABQ (505-296-8568)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Stewart P. Ahn 5920</b>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b>셋방 ROOM RENT</b>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태권도 TaeKwonDo</b>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350/mo</b> +DD \$100 + 1/3 Util. Available date: Immediately NON-Smoking and No-Pet. Phone : 505-352-5775 E-Mail: cyoh2003@yahoo. co.kr Contact:오영 권사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종교 Church</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b> <b>Annunciation Church,</b>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Ichiban Japanese: 10701</b> <b>Coors Rd NW ABQ (505-</b> <b>899-0095)</b>	<b>Kelly Liquors</b>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 8222)	<b>의류 Clothes</b>	<b>뉴멕시코 성결교회</b>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b>한 의사 Acupuncture</b>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Best Outlet: 3300 San</b> <b>Mateo Blvd NE, ABQ</b> <b>(505-884-2202)</b>	<b>샌디아 장로교회</b>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b>Dr. Chang: (장상순)</b> 3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부동산 Realtors</b>	<b>Dot Clothing Co: 7200</b> <b>Montgomery NE Suite C,</b> <b>ABQ (505-830-9400)</b>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Dr. Park: (박달규)</b>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b>GEM X Imports 10701</b> <b>Coors Rd. NW ABQ, NM</b> <b>87114 (505-899-3420)</b>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화랑 Gallery</b>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Park Fine Art Gallery</b> <b>(박영숙): 20 First Galleria</b> <b>Plaza NW, Suite #27</b> <b>(505-764-1900)</b>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회원/원예 Nursery</b>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Osuna Nursery: 501 Osuna</b> <b>Rd NE, ABQ</b> <b>(505-345-6644)</b>
<b>Sizzler</b>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b>사진관 Photo</b></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b>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b></p> <p><b>건강식품 Health Food</b></p> <p>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p>	<p><b>카페/ 선물 Cafe/Gift</b></p> <p>Big Chair Cafe &amp;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p>	<p><b>편집후기</b></p> <p>교회 소식지로 시작했던 “광야의 소리”가 원래 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뉴멕시코 한인인 지 역사회를 위한 뉴스레터로 봉사하는 시도를 해 온지 몇해가 되었습니다. 뉴멕시코 한인사회 의 여러분과 뉴멕시코 한인회, 뉴멕시코 교역자 협회, 상공인협회등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주심 으로 뉴멕시코 한인을 위한 뉴스레터로 지금에 도달할수가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p>
<p><b>중재서비스</b></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b>종교 Church</b></p> <p>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p><b>병원 Clinic</b></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p>	<p>금년은 특히 인터넷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드 카피 인쇄 뿐만 아니라 PDF File로도 만 들어서 E-mail 또는 웹사이트란 새로운 매체로 독자를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e-mail을 통해서 받아 보실수 있게 되길 바랍니 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발송 리스트에 올려서 E-mail 로 보내드리고 “광야의 소리”를 컴퓨터 모니터로 보실수 있게 됩니다. 보내주신 주소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광야의 소리 발송 에만 사용할 것입니다.</p>
<p><b>단요가 Dahn Yoga</b></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b>산타페 Santa Fe</b></p> <p><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b>종교 Church</b></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는 505-269-0691</p>	<p>미 국내 한인들을 위한 e-Newsletter로 최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문중에 시애틀N과 KAmericaPost가 있습니다. 두 곳에서 발행된 기사 콘텐츠를 “광야의 소리”와 공유할수 있도 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보다 폭 넓은 교양, 문화 기사를 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니얼홍의 “대학을 가는 목적”과 김&amp;김 회계 법인의 “공 제 세법에 관하여” 두 전제 기사는 이곳 교민들 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p>
<p><b>리오란초 Rio Rancho</b></p> <p><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b>라스베가스 Las Vegas</b></p> <p><b>치과 Dentist</b></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광야의 소리”가 뉴멕시코 한인들의 사랑을 받 아가며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한 뉴스레터로 자 라서 지역사회의 화목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원합니다.</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p><b>종교 Church</b></p> <p>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p>	<p><b>화밍톤 Farmington</b></p> <p><b>종교 Church</b></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편집인: 이경화 장로</p>
<p><b>클로비스 Clovis</b></p> <p><b>종교 Church</b></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p>	<p><b>라스크루세스 Las Cruces</b></p> <p><b>공인회계사 ACC</b></p> <p>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b>가게 Store</b></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p>	<p><b>광야의 소리</b> Voice in the Wilderness 2013년 11/12월호 발행일 : 2013.11.15</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p>

##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Mon-Sat  
10:00-6:00  
Sunday  
close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